

수십년 관행 어업보단 법의 잣대 우선...완도 넓고리 어민 21명 형사처벌

끝내 벌금폭탄... '매생이 마을'의 한숨

허가 면적보다 넓은 지역에서 '불법' 매생이 양식을 한 어민들이 끝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영업 방식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생계를 위해 양식어업을 하는 60~70대 노인들에게 '법의 잣대'만 들이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청은 7일 지정된 공동 면허장의 외 지역에서 매생이를 불법 양식한 혐의(면허어업 등 수산업법 위반)로 완도군 약산면 넓고리 어촌계원 21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그만 어촌 마을 매생이 양식어업 전체가 '범법자'가 되는 셈이다.

해경 수사는 지난해 9월 같은 마을 주민(60)이 주민들간 공동 양식 면적을 나누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마을 어촌계가 허가 외 불법으로 양식하는 면적(9ha)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해당 주민은 신고 뒤 화재로 숨졌다.

하지만 해경은 신고가 접수된 만큼 수사를 중단할 수 없어 마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공



작년 양식구역 나누는 과정 불만...어촌계원이 신고 완도해경, 공동면허장 이외 지역서 불법 양식 입건 "고민없는 법 적용에 무더기 범법자 양산" 비판

동 양식 구역으로 허가받은 20ha(약 20만 m) 외에 추가로 9ha 해역에서 무허가 양식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 대나무로 만든 양식밭(가로 1.8·세로 8m) 40여개를 추가로 설치, 불법 양식을 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면허어업 위반 혐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결국 해경에 입건된 어민들은 지난해 한창 채취 작업으로 바쁜 시기, 경찰 조사에 시

간을 뺀건데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까지 겹쳐 수익이 줄어들고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격저하 폭락한 상황에서 수백만원의 벌금까지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금성(61) 넓고리 어촌계장은 "매생이 한계기에 1500~2000원 하던 게 올해는 300~500원에 불과했다"면서 "매생이 양식을 해 1년을 사는데 올해 번 수익 벌금이 더 나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관행 어업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법적 잣대'만 들이던 해경과 애초 매생이 양식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면허장을 넓혀준 것을 요점했음에도, 해양환경보호 및 인근 마을 양식장과의 거리 등을 들어 적극 나서지 않았던 완도군에 대한 '십십함'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식 어민들을 상대로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관행적 양식 행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적십자회원들 급식나눔 봉사 광주·전남적십자회원들이 7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시영2차 아파트 근린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급식나눔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르신 번거롭게 하는 동구 '스쿨존 지킴이' 사업

"수행기관 방문해 출퇴근 확인하고 근무지 가라"...논란

광주시 동구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진행중인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이 참여 노인들의 근무지 출·퇴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근무지에서 사업 수행기록해 통통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동구는 7일 만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인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무지 출·퇴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매일 근무지에서 사업 수행기록해 통통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동구 출·퇴근 확인 방침대로라면 노인들은 출·퇴근 할 때마다 시내버스를 수차례 갈아타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들어가는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가 학동, 근무지가 온림동 초등학교라면 해당 노인은 학동에서 동명동에 있는 (사)대한노인회 광주동구지회 사무실까지 출근해 서명한 뒤 다시 온림동에 있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 교통 안내 활동을 벌인 뒤 다시 동명동으로 옮겨 서명한 뒤 퇴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루 평균 네 번 시내버스를 타는 데 현금으로 1200원씩 4800원이 들고 한 달(12번 출·퇴근 기준)이면 5만7600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애초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지 조장이 직원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고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돌며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과 대조적이다.

120명의 노인들이 30개 초등학교에서 스쿨존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북구의 경우 팀당 2~6명씩 나누고 조장이 직원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 전화로 보고하도록 했고 광산구는 사업 참여자들에게 출·퇴근 일지를 나눠주고 서명하도록 한 뒤 매일 한 차례 수행기관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다른 구처럼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고 조장을 선임한 뒤 직원들을 관리토록 했는데, 서로 조장을 하겠다는 노인들이 많아 문제가 됐다"면서 "행정성 차원에서 직접 방문, 출·퇴근 여부를 확인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교육청, 교사 채용 비리 고교 감사

광주의 한 고등학교의 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접수돼 광주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관내 A고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해당 고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최근 교사 6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면서 학교 안팎에서 탈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지난 2009년도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사결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순위 조작 비리 사실이 드러나 해당 학교 교장과 이사장 등에 대해 시교육청이 해임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사 채용 민원에 대해 이날 날에 감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산경찰, 교장·여교사 폭행 고교 교사 입건

교장과 여교사를 폭행한 고등학교 교사(광주일보 3월19일 6면)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광산경찰청은 7일 마다툼을 벌이다가 같은 학교 교장과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광주지법 모 고교 교사(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교사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9시에 서구 모 커피숍에서 학생 지도 방식을 놓고 다투다 교장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여교사를 다치게 한 혐의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경찰은 광주의 한 학부모단체가 지난해 말께 "S교사가 교장과 교감, 여교사를 폭행하고 교내에서 삼승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은 S교사 등 같은 학교 교사 6명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1~2차례씩 삼승 도박을 했다는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완도 해조류박람회 실시간 날씨 알려준다

광주시상성, 내달 11일까지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1일 개막하는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대한 상세날씨정보를 다음달 11일까지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동식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해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날씨, 단기예보 등 기상예보는 물론 자외선 지수와 같은 생활기상지수는 박람회장 홈페이지(www.wandoexpo.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시간 간격으로 정보가 갱신된다.

또, 박람회장 산업자원관에는 인근 바다의 기상자료(파고·풍속·기온·수온 등)를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연안 바다의 파고를 관측하는 해양과도부위를 전시에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자동차 적성검사 못받아도 면허정지 결정기간 없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바로 면허를 살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등록 규제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IT'을 운영하고 기존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일 경찰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민영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고,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에 '규제개혁 제안마당'이라는 배너를 개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생활비 떨어지자...헤어진 여자친구 돼지저금통 텅타 덜미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모텔에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텅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최모(24·목포시)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에 광주 시 동구 산수동 A모텔에 사는 전 여자친구 이모(22)씨의 7층 객실에 몰래 침입해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쳐간 혐의.

○--최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전부터 알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같은 법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모텔 안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최씨를 검거.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매각물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원]	비고
2013타경 31586	1	사용본거지:전남 나주시 대호길 76-8 107동 1702호 [대호동, 대방노블랜드] 등택번호:40무5201 차말:토스카2.000HC 연식:2007	자동차	6,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2심산주차장
2014타경 664	1	사용본거지:전남 영광군 영광동 단주리430 1번지 등택번호:전남04리2608 기종:지게차 연식:2012	중기	17,000,000	보관장소:광산구산정동156-2심산주차장
2014타경 1162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안산로 49 [오지동] 등택번호:59로3149 차량:에쿠스 연식:2010	자동차	27,000,000	보관장소:광산구산정동156-2심산주차장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원]	비고
2013타경 22636	1	사용본거지:서울 노원구 화랑로60길 90[공릉동] 등택번호:62두6219 차량:모하비 연식:2008	자동차	26,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953-8424
2013타경 26942	1	사용본거지: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16. 201동 209호 등택번호:광주06다8877 기종:엄프트릭 연식:2008	자동차	55,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장록동50-132
2013타경 27730	1	사용본거지: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로200 등택번호:14우8563 차량:쏘렌토GLS 연식:2006	자동차	8,500,000	보관장소:광주서구마복동184-5현대중장바주차장
2013타경 28481	1	사용본거지:광주 남구 송암로 37 [송하동] 등택번호:광주06리6253 기종:엄프트릭 연식:1996	자동차	23,0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하동255-4[주]남부중기
2013타경 30682	1	사용본거지:제주 제주시 건일동 1037번지 11호 대상빌딩 3층 등택번호:제주98비6510 차량:스카니아트럭 연식:2004	자동차	41,000,000	보관장소:광주동구수기동66-1명성주차장내